

언약의 사람 (사도행전 7:54-60)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언약의 사람 스테반이다. 순교했다. 이 언약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그 때에 보좌 우편이 보였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신 것이다. 그 때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인다. 스테반 혼자 본 것이다.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스테반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처럼 되었다고 하였다. 놀랍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아닌가?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안 열어주셨으면 죽도록 발버둥을 쳐도 단 1초도 못 만난다.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광야 가는 동안 어려운데도 성막 만들라고 하셨다. 왜 그런가? 거기서 주무실려고 하셨는가? 출 25:22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라고 하셨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말할것이라고 하셨다. 이게 포인트이다. 출 29:42에 같은 내용이 또 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 앞에 드릴 번제라. 번제는 대표적인 제사이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게 그 시대의 제사이다. 그 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라고 하셨다. 예배를 드릴, 제사를 드릴 그 때에. 그리고 그 때 내가 너에게 말할것이라고 하셨다.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성도는 완전히 엉망된다. 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곧 당신의 백성을 거기서 만난다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 하나님이 안 만나시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되면 뭐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언약을 잡고 예배를 계속 드려야 한다. 하나님 거기서 나를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 때 말씀한다고 했잖아요? 말씀해주세요. 말씀 받으면 되는 것이다. 성취된다. 아무도 못 막는다. 그것이 나만 가진 비밀이다. 이것을 위하여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먹을것이 중요하고 물이 중요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와 말씀이 중요하다. 예배 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떡이 있기 때문에, 더 근본 해결책이기 때문에,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예사로 드리면 안된다. 진심으로 드려야 한다. 일찍 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란다. 자꾸 하면 부담된다는 사람이 있어서 말을 잘 못하는데, 자신을 위하여 일찍 와서 기도를 하고 예배에 참여하기 바란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처음에 선포하고 시작한다. 성령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다. 영적인 예배이다. 진리는 진리의 말씀이다. 말씀에 기준하여 예배 드려야 한다. 예배를 예사로 드리고 말씀을 받을수 없다. 말씀 안 받고 어찌 성령 인도 받았는가? 예배에 마음을 담으라.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너무 중요하다. 만일 교회에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냥 예배만 안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해야 할 모든 기능이 다 사라지는 것이다. 동의하는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예배를 안드리면 그걸 해도 그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교회에도 중요하고 개인 인생에도 중요하다.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할수 있는게 딱 하나 있다. 그게 기도와 예배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예배는 안드리면 어찌되는가? 그 기도는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예배가 기도보다도 더 근본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코로나도 끝났으니 모든 것 겁내지 마시고, 이 코로나가 교회에 남겨놓은 후유증을 우리가 제거해야 한다. 아무것도 아닌것에 물려서 교회가 쓰러지면 되겠는가? 사명을 가지기 바란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1. 언약

스테반의 순교 이야기이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순교이야기이다. 스테반은 오늘 7장 전체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이 언약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꿰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사람이고, 그 언약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것을 조금더 상세히 이야기 하면 그리스도 삼십이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 받는다. 중요하다. 다른 것을 믿어서는 절대 구원이 없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설명하려면 길지만 다 안다. 그는 우리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임을 믿을 때 구원 받는다. 그리고 이것을 언약으로 잡은 자는 살아 있는 중에도 권세를 누릴수 있다. 참 놀라운 일이다. 잡아 보라. 잘 안잡히는 것 같다. 그런데 잡으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면, 나는 아직 안되었는데도 권세가 나타난다. 놀랍다. 이게 약속이다. 내가 되어질 때 되어진다가 아니다. 너는 안 믿어도 돼. 너 믿음 없어도 내 말씀은 성취된다. 참 놀라운 은혜이다.

우리는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다. 어떤 분은 왜 나는 안될까 고민하는 분도 있다. 말을 못하는 분들도 있다. 나는 그리스도 언약 잡고 있는데 왜 이래? 하는 분도 있다. 그 이유는 원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아무도 말 못한다.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13이하에 있는 질문이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라. 그리스도는 내게 무엇인가? 여기에 답이 나와 답이 나는 것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대부분 그냥 넘어간다. 그냥 듣고 넘어간다. 맞다고 인정했는데, 넘어간다. 맞다고 인정하면 그것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안하기 바란다.

우리는 답이 필요하다. 문제를 해결할 답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 답을 그리스도라고 하였다. 심지어 마 6:33절에는 이 그리스도만 누리면 니가 필요한 것 다 주겠다고 하셨다. 잘 생각해 보라. 놀라운 일이다. 이게 진짜 사실인가? 이게 평생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지난주 신명기 8장 보았다. 핵심이 무엇인가? 떡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 아닌가? 우리는 떡이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말씀이다. 이 말씀 안에 떡이 있다는 그 말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져야 하는데, 자꾸 떡으로 떡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만드는게 사단이다. 사단에게 나도 모르게 속는 것이다. 자꾸 그게 먼저 생각이 난다. 기도를 할때에도 사실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분명히 먼저 해야 한다. 이것은 두말할 것이 없다.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도 그리스도라는 바탕 위에서 내 기도가 나가야 한다. 그런데 그걸 하기 싫고 그냥 내 기도를 바로 하고 싶다. 복음 바로 옆에서 종교인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고쳐야 한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말하기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할거야. 왜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니까. 그래서 떡이 아니요 말씀이라는 것이다. 오늘은 그냥 듣고 넘어가지 말기 바란다. 이를 악물고 이빨이 빠지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 잡고 결론 내야 한다. 말씀 안 들으면 인간이 이상해진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4백년간 선지자가 한명도 없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런적이 한번도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인간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기적을 계속 행했다.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라는 말 아닌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가 할 것인가? 왕으로 삼으려고만 했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안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말씀 안들으면 결국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복음을 완전 종교로 바꿨다.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를 죽일 정도로.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원죄 이후 일어난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답을 하나 주셨다. 원죄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딱 하나 하셨다. 그게 그리스도이다. 다시 한번 눈 떠야 한다. 원죄 이후에 일어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이거 한번 실험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진짜인가? 진짜 그리스도가 답인가? 난 지금 돈 때문에 문제되어 상황이 신통치 않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답인가? 우리 집에는 지금 인간은 아무도 알수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답인가? 한번 해봐야 안되겠는가? 그래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야 그리스도에 답 난자가 되지 않겠는가? 답이 있어야 미래에 대한 답이 있고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가 답으로 나타났는가? 먼저는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으로 와야 한다. 방법은 말씀과 묵상이다. 말씀을 늘 듣고 거기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해야 한다. 말씀 들을 때 시간 내가지고 적으면서 들어야 한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듣고 돌아다니면 그 당시에는 은혜가 돼도 머리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적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넘겨보면 기억이 난다. 여하튼 말씀과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까? 정말로 질문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답이 나면 그 답을 언약으로 잡고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이고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런 기도 하면 사단 방해 많이 한다. 이것 지속하면 영적으로 더 답이 나온다. 영적으로 답이 나면 속에서 힘이 생긴다. 이유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되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나오는 것이다. 물론 그 때도 엇다운이 있다. 그러나 무시하고 계속 하면 증거를 주신다. 그러면 이 증거가 나에게 굉장하 영적인 유산이 된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되는 것이고 자꾸만 그리스도 답 나는 것이다. 그러면 더 깊어지는 것이다. 나는 사실 내 미래에 대해서 걱정 안한다. 전에는 안 그랬다. 함께 예배를 시작할때는 질문이 많은 사람이었다.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어떻게 할까, 전도 어떻게 할까? 소위 답이 없는 것이다. 불안하다. 예를 들어서 선교는 어떻게 할까, 제자는 어떻게 키울까, 고민된다. 목회에 대해서 스트레스 많아서 포기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다. 나는 그게 아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다. 나는 그게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는다. 내가 믿어서 믿는게 아니고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 생겨난다. 믿음이 우리의 것인가?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물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하나씩 이루어 가는 것을 보여주시니까 더더욱 그렇구나 하고 확인하게 된 것이

다. 그래서 한번씩 생각해 보면 이게 대단한 은혜인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는데 생각해 본다. 그러면 항상 내 마음속에 양심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다. 이 언약 복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에 대하여 조금 남다르게 이론적으로 정리 좀 하고 누릴려고 발버둥 좀 치고 그랬는데, 상당히 다르다. 내 생각에. 그것 처음에 같이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이게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려운 다양한 질문이 많이 있었다. 무언가 표현도 잘 안되지만 질문 많았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 하면서. 지금은 그런 질문 없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따라간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럴까가 아니다. 그래서 한번씩 생각해 보는 것이다. 감사하다. 감사하면서 어쩌다가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 생각하면 늘 나오는 단어이다. 그래서 나는 부담을 느끼는 분이 있으니까 노골적으로 강하게는 말 하지 못하지만 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출발이 언약기도 쓰는 것이었다. 복음은 전예부터 듣고 있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듣는 편이었다. 죄송한 이야기인데, 내가 알고 누리고 은혜는 받아도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알고 있다. 그것 가지고 복음전하고 성경공부 하면 은혜 받았다. 되지도 않은 영어로 하는데도 현자인이 은혜 받는다. 아는 것이었지 내 것이 아니었다. 그럼 꼭 써야 되느냐? 아니다. 나는 내 이야기 하는 것이다. 내 경우에는 이것을 쓸때와 안 쓸때가 영적인 차이가 너무 나는 것이다. 기도는 늘 하고 있다. 나만 그런지는 모르겠다. 여하튼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 복음 안으로 한걸음이라도 깊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날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언약기도도 그냥 쓴다. 그렇게 깊은 고백 안한다. 나는 어떤 때는 기도하기 싫고 힘드 때가 있다. 그때는 언약기도 한번 쓰고 그냥 하나님 하고 자 버릴 때도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그걸 쓰고 나면 기분이 괜찮았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주셨다. 한 한달 정도는 진짜 그 시간이 은혜되고 기다려지고 그랬다. 그런데 세월 지나가니까 지금은 또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하고 있다. 그래도 옛날보다는 기도의 영권이 다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 언약을 주셨다. 처음에는 감사하기도 하고 열떨떨했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차츰차츰 언약이 더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다. 당연히 그것을 기도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요셉이 꿈을 받았다는 것이 더 이해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꿈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그 꿈을 잊을 수가 있겠는가? 당연히 기도되어야 되고 질문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지나는 것이다. 지나는 사이에 자꾸 각인이 되고 하나님 언약이 되는 것이다.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도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요셉은 슬프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다. 부작 용이나 어려움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다. 처음에 류목사님이 요셉은 다 알고 있었다고 할 때, 글썄요라는 의문이 들었다. 언약으로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믿음은 이해가 되었다. 그런데 미리 알아서 미리 응답받았어. 이미 정복해. 그때 글썄요? 했다. 그런데 지금 반은 이해한다. 내게 그렇게 있으니까. 그것은 결국은 믿음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이 있으면 자기 전에 정복하는 것이고 다 끝났으니 다른 것은 상관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받았는데, 이걸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가? 이것은 모든 것에 대한 무기인데? 그래서 언약기도 하루에 한번 써서 이런 것 주신다면 누가 안하겠는가? 그래서 나는 오늘도 쓰는 것이다. 그런데 요새는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언약기도 쓸 때 호흡도 되는 것이다. 전에는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쓰는 것과 호흡하는 것이 섞여서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었다. 그런데 한번씩 가다가 되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많이 달라졌다. 일단 한시간 호흡한다. 물론 이 호흡이 골라야 한다. 아직은 러프하다. 그래도 시작되었다.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무슨 응답이 있는가? 누가 잘 하겠는가? 발버둥을 치는 거지.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도 쉰어, 평생에 언약도 주고 기도제목도 주고 호흡도 쉰다. 놀라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진행되어가고 뭔가 나타나고 있어, 그러면 이미 끝났다. 미리 정복하는 것이다. 왜 이런 말 할 수 있는가? 말씀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받았으면 끝이다. 끝까지 가는 것이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다. 윤리 관계 없다. 하나님의 소원은 인간의 윤리와 아무 관계 없다. 잘하고 못하고도 관계 없다. 오히려 못하면 더 하나님이 빛난다. 요셉에게 꿈이 들어와서 끝났다. 그 꿈이 꿈인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다. 내가 니 인생을 이렇게 만들 것이다. 끝 아닌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개인 언약이다. 그 전까지도 훌륭한 사람이었다. 창세기를 썼는데, 복음 확실히 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야 한다. 그런데 방향이 없었다. 인생의 방향이. 아는데 방향하는 것이다.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 안다. 인생의 방향이 있는가? 그게 우리의 생명인가? 그게 내 인생이냐는 것이다.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방향하게 된다. 뭔가 다른 것을 하게 된다. 이것을 받아야 할 것 아닌가? 스데반이 이걸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죽어도

괜찮은 것이다. 그때 말만 잠깐 바꿨으면 안죽었다. 그러나 그렇게 안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죽었다. 이런 인생 살아야 안되겠는가? 뎀넌트, 청년들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은가? 뭐가 세상의 가치가 있는가?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언약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코로나를 통해서 전세계가 죽어가고 있는데, 미국 교회는 본래부터 변질되고 죽어간다는 말 많이 한다. 미국에 살고 있고 시대적 복음을 받은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누가 이 일을 하겠냐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런 일 생겼다 그래서 울고 불고 싸우면 이래서 되겠는가? 답답하게?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완전 뒤집어 버려야 한다. 겁내지 말아라. 걸려도 괜찮다. 본래는 걸려서 죽어도 괜찮다는 것이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안온 분들에게 하는 말 아니다. 아프면 집에 있어야 한다. 무슨 말 이냐면 보편적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을 깨라는 것이다. 사단이다. 내가 요즘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분명히 어느 부분 물렸다는 것이다. 이게 시대적인 문제이다. 그 때 시대적인 복음을 받았다는 우리가 넘어지면 누가 살리냐는 것이다. 그래서 금요일예배에 시간에 조금 이야기 했는데, 조금 특별한 일 이 있어서 집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예사로 화면보고 예배드렸다. 그러면 그게 예배인가? 특별한 경우에, 병원에 누워 있다면 화면으로도 예배 드려야지. 입다물고 있었는가? 그게 아니고 교회를 안가고 화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렸다는 생각이 이게 바로 코로나에게 물렸다는 것이다. 이 생각이 좀 서서히 무너져 간다. 교회사 전체를 보면 무너져간다. 5년 10년 지나면 핸드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예배드렸다고 할 것이다. 헌금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직 아나 로그이다라고 말할 분들도 있을 것이다. 멀리 있는 분들은 송금을 해야지 헌금 하러 비행기 타고 올건가? 진짜 헌금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고 헌금통에 넣는 것이다. 헌금통에 넣는 행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의미있다. 집에서 간단히 송금으로 처리하는 것도 어카운트 들어왔으니까 헌금 했지. 그러나 영적인 효과는, 영적인 은혜는 많이 사라지는 것이다. 같이 모이면 은혜되는 것이다. 같이 모이면 옆에 사람에게 은혜받는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3번은 내게 얼굴을 보여라. 이게 구약시대의 의무인데, 지금 혼자 있으면 이 은혜가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확인하고 나도 언약주세요 기도하기 바란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인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 증인되기 바란다.

오늘 과테말라 가는 것 때문에 헌금하는데 가서 뭐하는가?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말하고 너 기도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거 말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언약이 너의 인생의 답인 것을 증인이 되는 것이다. 축복이 있기 바란다.

2. 사명

답을 가졌으면 누려서 응답을 받아야 한다. 응답을 받아야 내가 산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린다.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한다. 이 답을 전달해야 한다. 이게 사명이다. 사명은 일이 아니고 또 하나의 답이다.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십자가는 사람을 저주에서 건지는 것이다. 이거 전달해야 한다. 신 8:1에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니가 산다고 말했다. 그리고 니 인생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였다. 살아야 할 것 아닌가? 살고만 있는게 아니라 인생이 번성해야지. 내 미래에 들어갈 땅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았다. 거기 들어가야 할 것 아닌가? 이게 응답이고 축복이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느냐? 지켜야 한다. 그래야 답이 나온다. 복음의 끝이 율법이다. 복음과 율법은 다른게 아니다. 다른 연장선상에 있다. 율법이 없는 복음은 방종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복음은 사기이다. 속은 것이다. 고린도 전서 9장 21절에 사도바울의 이야기인데, 사도바울은 도리어 자기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에게도 율법이 있다. 더 세다. 전에는 남의 것을 훔쳐야 율법을 범한 것이었다. 지금은 마음에 탐만 내도 율법을 범한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우리가 무엇을 지켜 행하는가? 첫째는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십계명 다 나가는 것이다. 그 다음 부활메세지 4개이다. 이것을 내가 지켜 행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힘을 얻어야 한다. 그게 기도요, 말씀이요, 예배이다. 이것을 함께 해야 한다. 사단은 조직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예배 해야 한다. 뭐가 가치가 있는가? 지켜 행하는 자가 다 되기 바란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전보다도 더 정상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 바란다. 그러면 성경이 약속했다.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너의 인생도 살 것이다. 당연히 너의 가족과 너 자신도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약속의 땅에도 들어갈 것이다. 이게 답이다. 그게 지켜 행하는 이유이다. 함께 코로나의 모든 후유증을 뒤집어 버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한다.